



광주에 두번째 예술영화관 생겼다

7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광주극장은 지난 2002년 예술영화전용관으로 선정돼 다양한 영화들을 상영해왔다. 상업 논리에 밀려 찬밥 신세가 되어버린 '작은 영화'들을 꾸준히 상영했고, 다채로운 영화제를 통해 마니아들의 갈증을 해소해 왔다.

광주극장과 함께 광주 예술영화 활성화를 책임질 또 하나의 예술영화전용관이 탄생했다. 지난 2010년 광주시 동구 서석동에 문을 연 광주영상복합관(대성학원 옆)의 'G시네마'가 올해부터 영화진흥위원회 선정, 예술영화전용관으로 첫발을 댄다.

화와 미개봉 독립영화를 확보하고 '무비 필라주'를 운영하고 있는 CGV와 연계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수급을 위해서 G시네마 뿐만 아니라 광주 CGI센터 내 영상관 등 4개 영상관련 시설의 프로그램을 기획할 전달 인력을 배치한 상태다.

G시네마는 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간이니만큼 지역에서 생산되는 저예산 영화, 실험영화 등의 상영 기회를 확대하고 창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갈 계획이다.

극장측은 자세한 프로그램과 운영 계획



G시네마가 자리잡은 광주영상복합관



105석 규모인 G시네마 내부

영진위, 광주 'G 시네마' 등 전국 36개 전용관 선정 지역 저예산·독립 영화 확대...5월부터 본격 상영 "기존 전용관 광주극장과의 원원 전락 마련해야"

광주 지역 예술영화전용관은 지원 제도가 실시된 첫해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광주극장이 유일했다. 2000년대 초 무등시네마가 지원 신청을 한 적이 있지만 탈락한 후 새로운 전용관 확정은 G시네마가 처음이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29일 G시네마 등 36개 극장을 2012년 예술영화전용관으로 확정 발표했다. 36개 극장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용관은 G시네마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등 모두 3곳이다.

G시네마는 시 출연기관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곳으로 개관 후 3D전용관 등으로 활용되다 지금은 '청춘극장'을 운영중이다.

G시네마의 좌석 수는 모두 105석으로 3D 영화 상영도 가능한 공간이다. G시네마가 이번에 지원받은 금액은 2300만원. 극장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수급은 영진위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독립영

등을 확정해 영진위에 보고한 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영을 시작한다.

문화 공간 확대라는 점에서는 반길 일이기도 하지만, G시네마가 예술전용관으로 확정되면서 광주극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 지역의 예술 영화 관객들이 두렵지 않은데다 극장도 인접해 있어 두 극장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실, G시네마측이 전용관 지원 신청을 하면서도 신경 썼던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광주극장이었다. 10여년간 꾸준히 정체성을 이어온 민간극장 영역을 침범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광주극장 관객은 매년 2~3만명 수준으로 '워낭소리', '울지마 톤즈' 등 독립영화계의 대박영화가 터지지 않고서는 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 광주극장은 올해 5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인센티브를 받아왔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병욱 수석은 "민간 영역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공공 부문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 두 극장이 '인원'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광주극장 관계자들과 조만간 대화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극장 김형수 이사는 "광주극장에서 상영하지 못하는 영화들이 많이 있어 또 다른 전용관의 등장이 궁극적으로 예술영화 관객이 늘어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G시네마만의 색깔이 묻어나는 프

로그램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G시네마가 운영하는 '청춘극장'은 5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추억의 영화를 상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목요일(오후 2시) 한 차례씩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3월 상영작은 '타파니에서 아침을'이며 4월에는 '별들의 고향'이 상영되며 '로마의 휴일', '고래사냥' 등이 대기중이다.

문의 G시네마 홈페이지(www.gvcc.or.kr), 062-350-934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최미화 '고무줄놀이'

봄빛 눈부신 날 '추억 나들이'

함평 잠월미술관 내달 1일부터 '봄빛 나들이'전

봄 소식이 절절한 요즘,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느낌이 드는 것 당연하다. 모처럼 맞는 주말, 야외 전시관을 찾아 봄 냄새를 맡아오는 것은 어떨까.

함평군 잠월미술관은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봄빛 나들이'전을 연다. 다종이 인형과 천연 염색 작품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의 어린 적 추억을 만날 수 있고 부모들은 그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전시다.

최미화씨는 이번 전시에서 전통 종이인

다종이를 활용, 강강술래, 고무줄놀이, 기차놀이 등 전통풍습은 물론, 지금은 보기가 쉽지 않은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인형들을 전시한다. 작가가 직접 물들어 접고 붙여 만드는 다종이의 자연스러움에 인형의 정겨움이 눈길을 끈다. 천연 염색을 활용한 김현덕씨는 '매화를 찾아서'라는 작품을 통해 봄의 정령사인 매화꽃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토요일에는 컵과 접시에 그림을 그리는 도예 체험도 가능하다. 문의 070-8872-6718.

/김지을기자 dok2000@

사회 첫 발...설레는 첫무대

신인피아노듀오 연주회 내일 문예회관 소극장

광주피아노듀오협회(회장 서영화 조선대 교수)가 주최하는 제3회 신인피아노듀오 연주회가 3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무대에 서는 이들은 지역 5개 대학교서 김경아·박의혁·서영화·구재환·조혜원·김신영·신수경 교수 등을 사사한 2012년 졸업생들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연주자들은 두명씩 짝을 이뤄, 두 대의 피아노로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한다.

박건하·노금민(광주대)씨는 미요의 '스카 라무슈 작품 165b'를 들려주며 노을·감수잔나(조선대)씨는 비제의 '카르멘 콘서트 조곡'을 선사한다.

그밖에 김주아·전다영(호남신학대)씨의 생사곡 '스케르초 작품 7', 김찬양·박원영(목포대)씨의 홀스트 곡 '행성 작품 32', 황인지·윤상아씨(전남대)의 라흐마니노프곡 '조곡 2번 작품 17' 등이 연주된다. 문의 010-3642-162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 현대미술작가 소개 영문책자 발간

한국 현대미술작가 100명을 소개한 영문(英文) 책자 '100.art.kr'이 발간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한국 미술가 100명을 해외에 소개하는 영문 홍보 책자를 발간했다.

한국 현대 미술을 세계에 알릴 만한 출판물이 없다는 미술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이수경·이흥백·정연두·강영민·노순택 등 한국 대표 작가들에 대한 소개를 알파벳

순의 인명사전의 형식으로 구성해 실었다. 고충환·유진상씨 등 10명의 평론가가 집필에 참여했으며 한국 현대미술 전람을 소개하는 글과 중요 키워드 20개를 정리한 용어 소사전도 수록했다.

책은 해외 출판을 비롯해 애플 형태의 전자책(e-book)으로 온라인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통예술강좌 'K-Arts 아카데미' 내달 23일 가동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한류콘텐츠 제작을 위한 교육과정인 'K-Arts 아카데미'가 내달 23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4월13일까지 수

강생을 모집해 5월31일까지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아카데미에는 전통예술분야 최고 강사진이 참여하며, 모두 6개 과정을 진행한다. 교

육은 입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입문과정은 전통문화예술을 이해하고 미감(味感)을 체득할 수 있는 교육으로 국악·공예·회화·건축·음악 등 장르별 명사의

강의와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심화과정은 고고학·미술사·국악·민속·공예와 관련한 집의와 토론 중심의 수업이다.

여기에 김영나 국립중앙박물관장, 이도복 국립국악원장, 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장이 직접 멘토로 참여한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gokam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708-2215.

/연협뉴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1년

www.geumsoojang.com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38,000원 / B코스 33,000원
C코스 25,000원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

MEGABOX	
1관	타이탄의 분노 (최고급관)
2관	건축학개론
3관	시체가 돌아왔다
4관	시체가 돌아왔다
5관	타이탄의 분노
6관	화차
7관	인터처블 / 민스민즈워
8관	건축학개론
9관	인터처블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호남주치터워, 황금주치터워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게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상당원연결 방법 - (1번 or 2번) - 0번
☎ 1588-7941

상무점 한투사랑 영화사
콜롬버스시네마

1관	존카터 / 타이탄의 분노
2관	콘트라밴드 / 인터처블
3관	시체가 돌아왔다
4관	타이탄의 분노
5관	스페이스독 / 저스티스
6관	인터처블 : 1%의우정
7관	건축학개론
8관	가비 / 건축학개론
9관	화차
10관	크로니클 / 화차

(상무점) 리뷰얼 오픈기념! 매일매일 팝인이 공짜!
★메가박스 회원 라바짜커피 1+1 행사★
평일 영그레이트 쿠폰이벤트 할인-엔터tainment-영화 무료!!
www.megabox.co.kr

상당원연결 방법 - (1번 or 2번) - 0번
☎ 1588-7941

하남점 한투사랑 영화사
콜롬버스시네마

1관	인터처블 : 1%의우정
2관	시체가 돌아왔다
3관	타이탄의 분노
4관	타이탄의 분노 / 건축학개론
5관	건축학개론
6관	인터처블 : 1%의우정
7관	콘트라밴드
8관	존카터
9관	시체가 돌아왔다
10관	크로니클 / 디스민즈워

매일매일 조조편 선착순30명 팝인이 공짜!
★메가박스 회원 라바짜커피 1+1 행사★
평일 영그레이트 쿠폰이벤트 할인-엔터tainment-영화 무료!!
호남최대주치터 / www.megabox.co.kr